

# 더들리 우드베리의 이슬람 선교신학과 21세기 한국 교회의 이슬람 선교

## I. 서론

한국 교회는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 선교 방향, 그리고 전략과 방법을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으로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드베리가 개발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은 기독교 이슬람 학자와 이슬람권 사역자가 무슬림 전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독교 이슬람 연구 방법이 그 핵심이다. 그의 이슬람 연구는 무슬림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필자는 우드베리의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을 한국 교회가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한국 교회의 선교 신학을 올바르게 정립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드베리의 기독교 이슬람 연구 방법은 기독교, 무슬림, 비종교인들도 그 가치를 인정할 이슬람 연구 방법이다.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이 제대로 정립되면 바른 이해를 통해 이슬람 세계를 해석할 수 있다. 그러한 이슬람 해석과 이해를 기초로 한 이슬람 선교는 더욱 복음적이고 또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우드베리는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복음주의에 기초한 이슬람 선교학을 정립했다. 그가 개발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은 학계와 선교 현장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

로잔세계선교위원회는 우드베리에게 이슬람 선교를 위한 로드맵을 요청했다. 그렇게 해서 그가 개발한 이슬람 연구 방법은 주로 영어권에만 알려졌지 이슬람 선교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한국 교회에는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한국이슬람연구소 요청으로 이번에 우드베리의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을 한국교회에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본 논고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우드베리가 남긴 선교적 유산,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을 연구해 다룬 자료다.

## II. 본론

### 1. 연구 방법 개발 배경

19세기 후반까지 중동과 근동 지역 기독교 이슬람 선교는 별로 기록할 만한 이야깃거리가 없었다. 기독교는 좀 더 생산적인 지역에 비교해 무슬림 세계를 등한시했다고 기독교 역사 학자 스티븐 니일은 주장했다.<sup>1</sup> 개신교는 사무엘 즈웨머가 1906년 카이로에서 개최한 세계 최초의 이슬람권 선교대회 이후부터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카이로 선교대회는 기독교 선교에 있어 이슬람 선교를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sup>1</sup> Stephen Neill, 『기독교 선교사』, 홍치모, 오만규 옮김, (서울: 성광문화사, 2001).

선교대회였다. 개신교는 카이로 선교대회를 시작으로 에딘버러 선교대회, 인도 리크나우 선교대회 같은 세계적인 선교대회를 계속 개최했다.

여러 차례 선교대회가 열렸지만, 로잔 세계 선교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두기 전까지 이슬람 세계는 여전히 기독교 선교의 불모지였다. 로잔 세계 선교위원회는 세계 최대 미전도종족 집단인 이슬람 세계에 관심을 두고 그들을 전략적 선교 대상으로 재조명했다. 로잔 세계 선교위원회의 노력으로 기독교 이슬람 선교에 역사를 바꿀만한 중요한 사건이 1978년 일어났다. 그것은 글렌 아이리 북미주 이슬람 선교 콘퍼런스였다. 이 콘퍼런스는 황무지 같던 이슬람 선교에 개신교가 새로운 물줄기를 내어 생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했다.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 이후 개신교 이슬람 선교에 작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콘퍼런스 이후 선교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하나는 무슬림 전도를 위한 이슬람 개요서 출판이고, 다른 하나는 이슬람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연구 기관 설립이었다.<sup>2</sup> 이 콘퍼런스 이전에는 이슬람 선교를 위해 전문적인 훈련과 정보를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슬람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사는 이슬람에 거의 무지하거나 자신이 수집하고 연구한 단편적인 이슬람을 아는 것이 전부였다. 대부분 선교사가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본국에서 생각하던 선교를 상상하며 선교지에 왔다. 그나마 이슬람에 대한 사전 지식과 이해를 습득한 경우는 무슬림이나 비무슬림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통해 정통 이슬람을 학습한 경우다.

콘퍼런스를 준비한 단 맥커리는 이 콘퍼런스가 끝난 다음 선교위원회 결정으로 윌리엄 케리 대학 캠퍼스에 1979년 사무엘 즈웨머 연구소를 설립했다.<sup>3</sup> 풀러 신학교도 1978년부터 이슬람 연구 과정을 개설했다. 1976년까지 풀러 신학교 교수였던 랄프 윈터는 1977년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교를 설립하면서 사무엘 즈웨머 연구소와 함께 이슬람 연구 프로그램을 학위과정으로 시작했다.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는 이슬람권 선교사와 기독교 지도자가 이슬람을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독교 이슬람 선교 연구 과정을 개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sup>4</sup>

그 당시 풀러 선교대학원,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교, 사무엘 즈웨머 연구소는 모두 LA 근교 파사데나에 있었다. 이 세 기관은 세계 선교를 위해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특히 풀러 선교대학원 교수였던 랄프 윈터는 1976년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를 설립한 후 1977년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을 다시 설립했다. 풀러 선교대학원과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그리고 미국세계선교센터는 세계 선교를 위해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도우며 향후 미국 주도의 세계 선교에 큰 공헌을 했다.

우드베리는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를 다녀온 후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사역을 정리하고 RBC로 옮겨 신학교 사역을 했다. 그 당시 풀러 선교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폴 허버트와 찰스 크래프트는 이제 막 개설한 이슬람 연구 프로그램 교수에 우드베리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파사데나에서 시작한 이 사역에 우드베리가 동참해

---

<sup>2</sup> Don M. MacCurry, *The Gospel and Islam; a 1978 Compendium* (Monrovia: MARC).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 내용과 결과물은 이곳을 보라.

<sup>3</sup>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과 미국세계선교센터(US Center for World Mission)는 랄프 윈터 박사에 의해 설립되었다. 두 기관은 같은 캠퍼스에 위치해 있었고, 이 센터는 미국 세계 선교의 허브와 같은 역할을 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단체의 미국 본부 사무실 이곳에 있었다. 사무엘 즈웨머 연구소는 랄프 윈터의 도움으로 이곳 캠퍼스에 연구소를 개설할 수 있었다.

<sup>4</sup>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를 계기로 개신교는 이슬람을 일반과정, 학사과정, 석사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정규 학위 프로그램을 북미주에 개설했다.

달라고 요청했고,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 이후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연구하는 방법에 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던 우드베리는 이 제의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우드베리는 파사데나로 사역지를 옮긴 후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에서 발표해 출판한 이슬람 개요서, *The Gospel and Islam* (복음과 이슬람)을 기초로 자신의 해박한 이슬람 지식을 더해 이슬람 개론 과정의 교과 과정을 구성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기독교 지도자와 이슬람권 선교사를 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이 학위과정을 사무엘 즈웨머 연구소, 윌리엄 케리 국제대학교, 풀러 선교대학원을 통해 교수했다.

우드베리는 글렌 아이리 콘퍼런스에서 얻었던 통찰력을 가지고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이슬람 연구법을 더 깊이 개발하기 원했다. 1985년 풀러 선교대학원 교수로 사역지를 옮긴 후 그는 본격적인 기독교 이슬람 연구를 시작했다. 1987년 로잔 세계 선교위원회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제에 관한 논의를 위해 이슬람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전문가를 네덜란드로 초청했다. 위원회는 우드베리가 개신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연구 방향과 주제를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것이 본격적인 계기가 되어 그는 풀러 선교대학원을 통해 복음주의 신학교 가운데 가장 방대한 이슬람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 2. 연구 방법과 핵심 자료

우드베리는 풀러 신학교에서 이슬람을 교수하는 동안 자신만의 독특한 이슬람 연구 방법을 개발했다. 그가 만든 이슬람 연구 방법은 기존의 이슬람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는 기독교가 무슬림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슬람 연구 방법을 개발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없었던 접근법으로 우드베리에 의해 처음 개발된 이슬람 연구 방법이다. 우드베리는 자신의 이슬람 연구를 ‘의자의 네 다리’로 설명한다. 다음은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핵심 이론을 연구 분석해 기술한 것이다.

우드베리는 자신이 추구하는 이슬람 연구 방법을 *The View from a Refurbished Chair* (새로 단장한 자리로부터의 관점)<sup>5</sup>이라는 제목으로 취임사를 통해 밝혔다. 그는 자신이 풀러 선교대학원 학장과 이슬람학 석좌 교수에 취임할 때 이 글을 발표했다. 풀러 선교대학원장에 취임하면서 향후 자신이 풀러 선교대학원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슬람 선교학의 연구 방법을 이 글에서 “의자(The Chair)”로 표현해 설명했다.<sup>6</sup>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핵심 이론은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는 이것을 “의자의 네 다리 (The Legs of the Chair)”로 표현했다. 그가 말하는 의자의 네 다리는 서기 972년 이집트 카이로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대학 알 아자르(Al-Azhar) 모스크에 놓여 있던 의자의 네 다리를 말한다. 그 당시 알-아자르는 전 세계에서 모인 학생들로 항상 가득 차 있었다. 강의를 듣고자 하는 학생들은 모스크 기둥 옆에 있는 의자를 마주하고 원형을

---

<sup>5</sup> D. J. Woodberry, "The View from a Refurbished Chair,"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SERIES*, no. 23 (1996), <http://www.riss.kr/link?id=O8054572>.

<sup>6</sup> *Ibid.*, The Chair.

이루어 바닥에 둘러앉았다. 그러면 학자는 학생들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자신이 가르칠 주제를 교수했다.<sup>7</sup>

알-아자르 모스크에 있던 기둥과 의자는 학자의 권위와 신분을 알려주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모스크 안에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고 각 기둥은 학자가 강연하는 주제를 알려주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학자의 명성과 권위는 의자에 의해 결정되었다. 학자의 권위와 명성에 따라 바닥에서 가죽 매트, 가죽 매트에서 쿠션,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쿠션에서 의자로 올라가 앉게 된다. 의자에 앉는 학자는 자기가 강연하는 분야에 있어 최고의 권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우드베리는 자신이 개발한 기독교 이슬람 연구를 통해 모든 기독교 이슬람 연구자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기를 원했다. 그는 정통 이슬람 학자가 앉던 의자에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열망하는 모든 사역자가 앉기를 바랐다. 그의 이슬람 연구법을 통해 이슬람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이 이러한 권위와 명성을 갖기 원했다. 그는 수많은 구도자가 알-아자르 모스크 바닥에 앉아 의자에서 교수하던 학자의 강연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수많은 무슬림 구도자가 기독교 사역자들이 나누는 복음에 귀 기울여 복음을 듣기 소망했다.

우드베리는 기독교 이슬람 연구의 핵심 이론을 의자의 네 다리로 표현했다. 그가 표현한 네 다리는 그가 개발한 이슬람 연구 방법의 네 가지 요소를 의미한다.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핵심 이론인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무슬림 자료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첫 번째 요소는 무슬림 자료 (Muslim Sources)를 사용해 이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의자를 지탱하는 첫 번째 다리는 무슬림 자료다. 우드베리는 첫 번째 다리를 무슬림 자료를 사용한 정통 이슬람 연구에 견준다. 이것은 정통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문적 태도와 내용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리와 신조에 충실한 정통 무슬림의 실천적 요소도 포함한다. 정통 이슬람 연구는 종교 현상학자가 말하는 무슬림의 종교적 경험 공감할 가지고 이슬람을 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 연구법을 통해 우드베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가 자신의 관점으로 이슬람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무슬림 시각으로 이슬람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8</sup>

우드베리는 이슬람을 경전과 문서로만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에 한계를 둔다. 기독교는 과거에 이슬람 세계를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했다. 기독교 관점으로 이슬람을 해석해 오류를 찾았고 그것을 통해 이슬람을 비판하고 공격했다. 기독교 관점으로 무슬림에게 접근할 때 무슬림은 복음 증거자에게 오만과 편견의 장벽을 느낀다. 무슬림 관점에서 이슬람을 연구할 때 무슬림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종교를 이해하려는 기독교 증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우드베리 연구방법은 이 점에 있어 다르다.

우드베리는 무슬림이 생각하는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독교 복음 전도자는 무슬림이 이슬람을 이상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신봉하는 것처럼 기꺼이 그렇게 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sup>9</sup>고 생각했다. 그렇게 할 때 무슬림이 자신의 종교 이슬람에 대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졌는지 더 깊이 그들 관점과 정서로 이슬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드베리

<sup>7</sup> Ibid., The Making of the Chair.

<sup>8</sup> Ibid., Leg 1: Muslim Sources.

<sup>9</sup> Ibid.

이슬람 연구 방법의 첫 번째 요소는 무슬림 시각으로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방법이다.

## 2) 비무슬림 자료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두 번째 요소는 비무슬림 자료 (Non-Muslim Sources)를 사용해 이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의자를 지탱하는 두 번째 다리는 비무슬림 자료다. 두 번째 다리는 목수가 공들여 의자 다리를 조각하듯 서구 동양학자와 비무슬림 학자가 공들여 연구한 이슬람 자료를 가지고 이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그들은 사본 편집, 색인과 대백과사전 편집 그리고 흠어진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슬람 이해에 엄청난 보탬을 주었다. 아직 양쪽 학자들은 다른 쪽 학문을 빌려쓰기 보다 자기만의 연구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심층 연구를 하는 동양학자는 역사와 언어학 도구를 사용하며 행태론보다 원문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그들이 연구하는 것에 대한 종교적 경험이나 공감대가 없다.<sup>10</sup>

비무슬림 학자는 이슬람을 연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 서로 큰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 필수 언어학을 연구한 이슬람 학자가 역사 자료로 연구를 전환할 때 행태과학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종교 역사 학자는 이슬람 추종자의 삶과 경험, 헌신에 초점을 두지만,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훈련에는 관심이 없다.

기독교 선교사와 신학자는 이슬람을 연구할 때 기독교인이 경험한 신학적 카테고리 안에서 자기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슬람을 연구해 왔다. 그래서 무슬림은 기독교인이 말하는 이슬람은 자기들이 아는 이슬람이 아니거나 잘못된 이슬람을 기독교인이 억지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우드베리는 이슬람 연구에 있어서 통합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렇게 할 때만 기독교 복음 전도자가 이 모든 도구를 사용해 무슬림에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두 번째 요소는 비무슬림 시각으로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

## 3) 민속 이슬람 자료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세 번째 요소는 민속 이슬람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을 통해 이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의자를 지탱하는 세 번째 다리는 민속 이슬람 자료다. 세 번째 다리는 일반 대중이 믿는 토속 신앙과 관행이 이슬람화된 민속 이슬람을 가지고 이슬람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한 이슬람 최고의 대학 알-아자르에는 정통 이슬람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알-아자르 바로 길 건너편에는 수피 종단의 대표적인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 그리고 이 후세인 모스크에는 지식이 아닌 능력을 갈망하는 무슬림 추종자들로 가득하다. 그들은 민속 이슬람의 관행을 추구한다. 이것이 이슬람 세계의 현실이다. 이슬람을 연구하는 대부분 이슬람학자는 정통 이슬람을 연구한다. 하지만 거리에 있는

---

<sup>10</sup> Ibid., Leg 2: Non-Muslim Sources.

수많은 대중의 삶을 실제로 지배하는 이슬람의 관행은 일상생활과 토속적 관습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는 민속 이슬람이다.

이슬람 학자들 가운데 민속 이슬람을 연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와 반대로 문화인류학자는 민속 이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만 정작 정통 이슬람을 거의 모른다. 이슬람을 연구할 때 정통 이슬람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이슬람을 바로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이슬람 세계를 바르게 이해한 것이 아니다. 정통 이슬람만이 이슬람 세계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통 이슬람이라 생각하는 많은 관행과 믿음의 기동들조차도 사실은 아라비아반도를 비롯해 이슬람이 전파된 지역의 토속 관행이 이슬람에 융합된 것이기 때문이다.<sup>11</sup> 이슬람 세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속 이슬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민속 이슬람은 무슬림의 삶과 일상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민속 이슬람을 이해함 없이 이슬람 세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 복음 전도자는 무슬림이 원하는 가장 큰 필요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 무슬림의 관심은 죄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악령과 공포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다.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세 번째 요소는 민속 이슬람을 통해 일반 무슬림의 시각으로 이슬람 세계를 이해하는 연구 방법이다.

#### 4) 선교학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네 번째 요소는 선교적 (Mission) 관점으로 이슬람을 연구하는 것이다. 의자를 지탱하는 네 번째 다리는 선교다. 마지막 네 번째 다리는 의자를 완성하는 과정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의자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다리를 맞추는 작업은 도목수가 직접 한다. 우드베리는 이것을 선교라 말한다. 이슬람을 연구하는 기존의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드베리가 또 하나의 이슬람 연구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한 이유는 선교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과 연구 초점은 선교다. 사실 이 마지막 다리를 위해 나머지 세 다리가 존재한다고 그는 말한다.<sup>12</sup>

네 번째 다리는 나머지 세 다리의 연결이 필요하다. 나머지 세 다리의 도움이 없이 의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우드베리는 “나머지 셋은 이해를 위한 것이지만 어떤 요구에 헌신이 없는 이해는 무책임한 것이다”<sup>13</sup> 라고 말한다.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우드베리가 개발한 이슬람 연구는 기존의 이슬람 연구와 다르다. 이슬람을 이해하는 것이 연구 목적이 아니다. 그의 이슬람 연구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 방법의 네 번째 요소는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선교적 관점으로 이슬람 세계를 연구하는 방법이다.

---

<sup>11</sup> 김아영, 『민속이슬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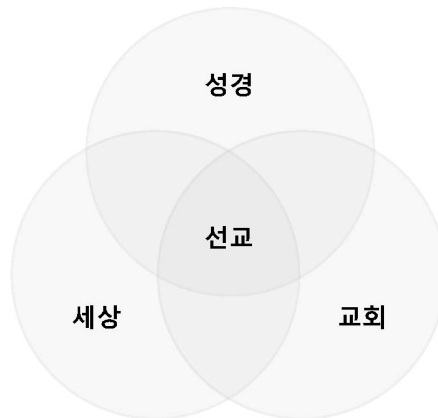
<sup>12</sup> Woodberry. 더 자세한 내용은 The Legs of the Chair에 나오는 내용을 보라.

<sup>13</sup> Ibid., Leg 4: Mission.

### 3. 우드베리 선교학

우드베리 이슬람 선교학은 우드베리가 개발한 이슬람 연구 방법을 선교 신학으로 정립한 것이다. 그의 이슬람 선교학은 선교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드베리 선교학의 뿌리는 풀러 선교대학원의 학문적 전통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풀러 선교대학원의 선교학 과정은 선교와 관련 있는 여러 가지 학과목을 한곳에 모아놓은 선교 관련 학과목 채집장 같았다. 우드베리는 1992년 풀러 선교대학원 원장으로 취임하며 전 학장이었던 폴 피어슨 박사의 제안으로 새로운 선교학 커리큘럼을 구상했다. 그는 풀러 선교대학원 선교학의 핵심 장점 (Core Competencies)을 말씀 (Word), 세상 (World), 교회 (Church/Kingdom)로 정의했다. 그 당시 다섯 가지 핵심 과정으로 구성된 풀러 선교학을 말씀, 세상, 교회라는 세 가지 핵심 구성 과정으로 재구성했다. 우드베리가 재구성한 선교학 교육 과정은 선교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말씀, 세상, 교회를 연구하는 세 과정의 중심에 선교학을 두었다. 우드베리는 이들 세 과정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내용을 풀러 선교학의 핵심 과정으로 규정하고 풀러 선교학의 학문 방향을 정립했다.<sup>14</sup>



<그림 1>

풀러 선교대학원 선교학 핵심 과정

<sup>14</sup> D. J. Woodberry, "School of World Mission Newsletter,"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5, No. 2 (1993).

우드베리 학문의 중심은 선교다. 그는 여러 학자가 정교하게 만든 학문의 다리를 선교에 사용한다. 그는 세상 모든 학문을 선교의 대위임령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함에 주저함이 없다. 우드베리는 선교를 위한 견고한 학문적 의자를 만들기 원했다.

그리스도가 목숨을 버리신 것은 교회가 아닌 세상을 위함이었다. 그리스도가 살아 있는 희생 제물, 어린양으로 보내진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이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과 교회를 둘러싼 수천의 다양한 문화들의 미래상을 그리면서 교회는 어느 곳에 있는지 그 문화 상황에 꼭 맞는 교회가 되고, 왕의 언약 백성인 본연의 모습을 더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sup>15</sup>

우드베리가 지향하는 학문 연구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는 이슬람 선교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학문을 수용한다. 우드베리 이슬람 선교학은 지난 수 세기 동안 기독교 세계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이슬람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적 열망에 기초한다. 그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목적은 말투리아에 있다. 여러 의미들이 가진 말투리아의 의미 범주 안에 교회의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역사적 사실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sup>16</sup>

우드베리는 자신이 수학한 이슬람 학문을 풀러 선교대학원 선교학을 통해 이슬람 선교학으로 발전시켰다. 그가 열망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무슬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평생 연구한 이슬람 학문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았다. 우드베리는 자신이 연구한 학문 연구의 목적과 본질을 잊지 않았다. 그는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이슬람 학문을 선교 신학 방법으로 접근해 우드베리 이슬람 선교학을 정립했다.

#### 4. 우드베리 연구의 실제

우드베리는 이슬람 연구에 탁월한 학자다. 그는 이슬람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다. 누구보다 이슬람에 대해 글로 쓸 것이 많은 학자다. 그는 많은 이슬람 저작물을 발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학자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름으로 많은 저작물을 발행하지 않았다. 우드베리는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출판물에 큰 관심이 없다. 오히려 편집인 역할을 더 즐기는 학자다. 우드베리는 자신의 연구에 적절한 최고의 학자가 이루어 놓은 학문적 업적과 현장 경험을 도입해 연구 자료로 사용한다.

---

<sup>15</sup> Charles Van Engen, 임윤택 옮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161.

<sup>16</sup> Charles Edward van Engen, 임윤택 옮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165. “말투리아:나의 증인이 되리라”는 용어는 사도행전 1:8에 나오는 단어를 벤 앵겐이 선교학 용어로 이곳에서 사용한다.



수많은 이슬람 연구 자료를 자신이 직접 다룰 수 있지만,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최고의 전문가와 학자가 공동으로 이룬 경험과 학문을 존중하며 그것들을 편집해 사용한다.

우드베리는 자신의 연구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그는 많은 자료 (무슬림 자료, 비무슬림 자료, 민속 이슬람 자료)를 가지고 이슬람을 연구한다. 가능한 모든 자료를 사용해 현대 무슬림에게 더욱 유용한 복음 전도 방법을 찾는다. 그것을 이슬람 선교학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한다. 그는 모든 복음 전도자가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그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원한다.

우드베리는 자신이 개발한 이슬람 연구 실체를 저작물로 발행했다. *Muslims & Christians on the Emmaus Road* (엠마오 도상 무슬림과 기독교인)<sup>17</sup>, *from Seed to Fruit* (씨앗에서 열매로)<sup>18</sup>는 우드베리가 편집해 발행한 두 주요 저작물이다.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 실체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저작물이 있다. *Toward Respectful Understanding & Witness Among Muslims* (존중하는 이해를 통한 무슬림 전도)<sup>19</sup>다. 이 책은 우드베리 이슬람 사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출판한 헌정도서다. 우드베리 이슬람 선교학의 핵심 주제를 편집해 발행한 도서다.

*Muslims & Christians on the Emmaus Road* (엠마오 도상에 있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실체를 다루는 첫 작품이다. 우드베리는 이 저작물 연구를 로잔 세계 선교위원회 요청으로 제작했다. 로잔 위원회는 이슬람 선교 전략과 방향을 세계 모든 교회에 제시하기 원했다. 우드베리는 선교위원회가 자신에게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선교 방향과 그에 필요한 연구 주제를 선택했다. “엠마오 도상에 있는 무슬림과 기독교인”은 로잔 위원회가 제시하는 개신교 이슬람 선교의 정책과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저작물이다.

*from Seed to Fruit* (씨앗에서 열매로)는 “엠마오 도상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발표한 다음 약 20년이 지난 후 우드베리 이름으로 편집해 발행한 후속 저작물이다. 이 저작물은 “엠마오 도상 무슬림과 기독교인”을 통해 우드베리가 제시한 이슬람 사역과 연구가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결과를 평가한 저작물이다. 동료 사역자와 전문가에 의해 약 3년 동안 수집하고 연구 분석한 결과를 이 두 번째 저작물에 담았다.<sup>20</sup> 그가 제시했던 연구 주제와 내용 그리고 사역 방향의 진행 과정과 결과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드베리 이슬람 사역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헌정도서, *Toward Respectful Understanding & Witness Among Muslims* (존중하는 이해를 통한 무슬림 전도)는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의 선교적 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저작물이다. 우드베리를 가장 잘 알고 또 그와 학문적 맥락을 같이 하는 여러 학자가 헌정한 연구 논문을 그의 제자 에벌린 (Evelyn A. Reisacher)이 편집해 출판한 작품이다. 현재 풀러 선교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그녀는 풀러 선교대학원을 대표해 우드베리 이슬람 사역 회년을 기념하는 헌정도서로 이 저작물을

<sup>17</sup> J. Dudley Woodberry, *Muslims & Christians on the Emmaus Road* (Monrovia: MARC, 1990).

<sup>18</sup> John Dudley Woodberry, *From Seed to Fruit :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2nd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0). 필자가 연구할 당시 본서에 인용한 도서는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지 않았다. 지금은 김아영 박사의 한국어 번역본이 출판되었으나 여기서는 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sup>19</sup> Evelyn A. Reisacher, *Toward Respectful Understanding & Witness among Muslims : Essays in Honor of J. Dudley Woodberry*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2).

<sup>20</sup> 본서는 2008년 첫 출판 되었다. 하지만 다시 정보를 첨가하여 2011년 두 번째 수정판을 출판했다. 본 연구는 그의 두 번째 자료를 다루었다.

편집했다. 여기에는 우드베리가 평생 헌신해 이룩한 이슬람 연구의 선교적 유산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 III. 결론

더들리 우드베리는 다음과 같은 선교적 유산을 남겼다.

첫째,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성숙한 영적 지도자 모델을 선교 유산으로 남겼다. 그는 이슬람권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의 일대기를 연구하다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파송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간섭하심이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그의 가족사를 통해 우드베리까지 놀랍게 전개된다. 우드베리는 무슬림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인내와 수고로 헌신한 선교사, 목사, 탐험가, 교사, 작가, 학자였다. 그는 성공했고 또 성숙한 영적 지도자였다.

둘째, 서구 최고의 기독교 이슬람 학자였던 그는 무슬림 전도를 위해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을 학문적 유산으로 남겼다. 우드베리를 아는 사람은 뛰어난 학문을 통해 기독교 이슬람 연구에 공헌한 그의 학자적 헌신에 한결같이 경의를 표했다. 그를 아는 대부분 기독교 이슬람 학자, 선교학자, 선교사는 우드베리의 이슬람 연구를 하나 같이 그의 탁월한 선교적 공헌과 업적으로 생각했다. 그는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가장 방대하고 탁월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을 개발해 기독교 이슬람 선교에 크게 이바지했다.

셋째, 복음적인 기독교 증거 방법과 삶을 선교적 유산으로 남겼다. 그는 겸손과 우호적인 태도로 무슬림에게 먼저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인한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방법을 연구했다. 우드베리 이슬람 연구는 기독교가 더욱 존중하는 이해적 자세로 이슬람을 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무슬림에게 복음의 비밀을 더욱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끈다. 그는 기독교인이 무슬림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자 삶으로 실천했다.

필자는 무슬림과 이슬람 세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이슬람 선교를 시작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속한 국제선교단체는 현대 개신교 이슬람 선교에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선교회를 통해 이슬람 선교를 위한 기본 훈련을 받았다. 그것은 다른 한국 선교사가 누릴 수 없었던 선교적 특권이였다. 하지만 선교 현장에서 사역할 때 무슬림 전도자였던 나는 두 마음이 자주 상충했다. 무슬림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이슬람 세계관에 기반을 둔 그들 문화를 거부하는 상반된 마음의 공존 때문이었다.

무슬림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선교적 의무와 열정은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이슬람 선교에 매진할 수 있도록 나를 채찍질하는 선교의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하지만 복음 전도를 위해 이슬람 문화 가운데 살았던 나의 일상생활은 도저히 용납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 세계관과 행동 양식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낙담 상흔이 함께 얼룩져 있었다. 서구 기독교 세계관과 한국인 관점으로 살아온 내가, 이슬람 세계에 살며 무슬림 관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들 관점으로 이슬람을 우호적 자세로 대하며, 무슬림에게 가까이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었다.

나는 무슬림 전도를 위해 이슬람을 연구했다. 수많은 이슬람 자료를 읽고, 세미나, 대학교 같은 전문 연구 기관에 등록해 나의 이슬람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그렇게 이해한 이슬람 지식을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와 선교사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슬람을 연구했지만, 그것은 순전히 나의 독자적 관점과 방법에 의한 단편적 지식의 축적이었다. 나를 포함해 수많은 이슬람 전문가들이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연구하지만 대부분 나와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구성된 이슬람 선교 훈련이나 이슬람 선교 방법, 이슬람 연구에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며 한계가 있었다.

우리 선교회는 사역을 위해 두 가지 서로 다른 선교 방법을 각 팀의 선교 전략으로 사용했다. 한 팀은 전통적 복음주의 선교 방법을, 다른 한 팀은 상황화 전략을 사용한 전도 방법을 선택했다. 두 팀은 선교 방법과 신교 신학 그리고 거주 환경도 달랐다. 세월이 흐르고 사역이 커질수록 우리는 서로의 사역으로 인해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갈등의 골은 깊어만 갔다. 전통적 복음주의 사역을 선택한 팀이 볼 때 무슬림과 동일시 하는 상황화 전략은 너무 진보적이었다. 상황화 전략을 선택한 팀이 상대를 볼 때 전통적 방법은 너무 구태의연한 선교 방법이었다.

우드베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나는 천사만감(千思萬感)이 교차했다. 과거 그는 나에게 여느 학자처럼 그저 저명한 서구 이슬람 학자 가운데 한 명일 뿐이었다. 그의 학자적 명성과 달리 그의 저작물은 많지도 않았고 더욱이 한국어로 소개된 저작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우드베리 저작물에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를 시작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알게 되었다. 그 안타까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진작 그의 이슬람 선교학을 알았다더라면 앞서 열거한 그렇게 많은 실수와 갈등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필자가 우드베리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을 제대로 연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너무나 큰 선교적 특권이었다. 우드베리의 삶과 무슬림 전도를 위해 그가 개발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이슬람권 사역자에게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탁월한 선교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기독교 이슬람 연구 방법과 실체는 학자뿐만 아니라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해 모든 현장 선교사와 기독교 지도자가 반드시 연구하고 다루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슬람 포비아 시대에 직면하고 있는 21세기 기독교 이슬람 선교에 있어, 우드베리의 삶과 그의 이슬람 연구는, 선교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무슬림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원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 권리가 있다.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분의 식탁에 초대하셨다. 기독교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초대하신 모든 사람 속에 포함된 무슬림을 거절할 자격이 없다. 예수가 기독교인에게 베풀어 주셨던 동일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무슬림을 막아설 명분이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마땅하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우드베리가 남긴 선교 유산은 세계에서 복음에 가장 취약한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한국 교회 지도자와 이슬람권 선교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21세기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중요한 선교 모델이자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이다.

#### IV. 제언

한국 교회 이슬람 선교는 전재옥 선교사가 1961년 파키스탄으로 떠난 것이 처음이고, 이슬람의 발생지 중동에 처음 도착한 한국인 선교사는 1976년 고 이연호 선교사였다. 고 이연호 선교사가 2년 반 만에 교통사고로 순직하고 아직도 선교 현장을 지키고 있는 아내 김신숙 선교사가 현재 가장 오래된 이슬람권 현장 사역자다. 한국 교회 이슬람 선교 역사는 짧고 선교사 숫자도 많지가 않았다. 현재 한국 교회 이슬람 선교사는 중동에만 약 1,300여 명<sup>21</sup>으로 그 숫자가 증가했다. 이슬람 선교를 생각하면 한국 선교사 전체 숫자에 비해 이슬람권 선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적어도 한국 교회가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18억 명으로 추산한다. 세계 인구 약 25%가 무슬림이다. 사람들은 대개 이슬람을 중동 아랍 종교로만 인식한다. 이슬람이 중동에서 발생했기에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중동 아랍을 이슬람 세계의 전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무슬림 가운데 2/3는 아시아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다. 무슬림 인구는 다문화 시대로 인해 유럽, 아프리카, 북미,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해 있다.

한국 교회는 한류 문화와 더불어 한국 사회로 몰려드는 무슬림 인구 증가에 적잖이 놀라고 있다. 특히 서구 사회와 기독교에 적대적 행동을 보이는 IS 테러 위협으로 인해 이슬람 포비아 현상은 더욱 팽배해지고 있다. 이와 달리 국내 많은 이슬람 학자는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며 이슬람을 옹호한다. 한국 정부는 할랄 시장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국 사회로 유입하는 무슬림 인구에 개방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이슬람 세계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무슬림 인구 유입을 환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 교회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한국 교회는 불확실한 이슬람 선교 방향과 정책으로 인해 혼돈 가운데 있다. 무슬림을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한국 사회 무슬림 유입을 절대 반대하는 선교사 부류, 그것은 무고한 혐의와 편견에 바탕을 둔 오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선교사들이 주장하는 ‘포용론’과 ‘경계론’의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인해 무엇이 사실이고 또 이슬람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 가운데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사이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 교회는 이슬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놓여있다.<sup>22</sup> 이러한 시점에 한국 교회는 우드베리가 남긴 선교적 유산을 더욱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음 세 가지 내용을 21세기 한국 교회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선교적 함의와 제언으로 남긴다.

첫째, 이슬람 선교를 위해 우드베리가 구성한 이슬람 개론의 주제와 내용을 더욱 깊이 연구해 한국 교회에 충분히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 교회 기독교 지도자와 이슬람권 사역자는 이슬람 문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 이슬람을 바르고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기독교 관점으로 기독교와 이슬람을 서로 비교해 양자의 종교적 주제와 내용을 잘 배우고 숙지해 이슬람 세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교회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 정립을 위해 우드베리가 개발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을 더 많이 연구하고 소개하기 바란다. 우드베리가 개발한 기독교 이슬람

<sup>21</sup> 한국세계선교협의회 2015년 발표 자료는 1,248명이다.

<sup>22</sup> 이러한 한국 교회의 기독교 이슬람 선교 상황은 “21세기 한국 이슬람의 어제와 오늘”에 나오는 내용을 보라.

선교학은 기독교 이슬람 학자와 이슬람권 사역자가 무슬림 전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독교 이슬람 연구 방법이 그 핵심이다. 그의 이슬람 연구는 무슬림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한국 교회는 기독교 이슬람 선교를 위한 다양한 연구 주제와 선교 방향 그리고 전략을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으로 정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교회는 이슬람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들에게 복음주의적 신앙에 입각해 우호적인 자세와 태도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우드베리의 복음적인 선교 정신과 태도를 연구하기 바란다. 우드베리의 선교 정신은 복음 전도자가 무슬림을 존중하는 이해를 통해 친근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복음의 비밀은 더욱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증거하도록 이끈다. 기독교인이 무슬림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무슬림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복음의 열정으로 사역하는 것이다. 한국 교회는 우드베리와 같은 복음적인 기독교 이슬람 선교 모델을 배워야 하기 때문이다.

911 테러 발생 직후 미국 정부는 이슬람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해 우드베리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로잔세계선교위원회도 기독교 이슬람 선교 방향과 전략을 세우기 위해 우드베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서구에서 이슬람을 교수하는 수많은 이슬람 학자가 우드베리를 존경하며 그와의 학문적 교류를 마다하지 않는다. 우드베리는 무슬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평생 사명으로 생각하고 이슬람 선교에 헌신한 열정적 기독교 이슬람 선교사였다. 학문과 현장 경험을 통해 자신의 독특한 이슬람 연구 방법을 개발해 교수했다. 그가 제시한 이슬람 선교 방향과 이슬람 연구 방법의 결과는 현장에서 사례 연구를 통해 이미 검증되었다. 필자는 한국 교회가 우드베리에 의해 개발된 기독교 이슬람 선교학 이해를 통해 21세기 이슬람 선교를 위한 도약과 발판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J. Dudley Woodberry's Missiology for Muslim Evangelism:

##### Missional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hurch

The purpose of this work is to find the mission theological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study and direction of the Korean church by researching the missional legacy left by J. Dudley Woodberry through his life and ministry for Muslim evangelism. This work is introducing the core elements of Dudley Woodberry's missiology for Islam Mission. His missiology for Islam mission was formed by evangelical faith, mission field experiences and various distinguished scholars with academic tradition and continuity. Those influences provided concrete resources to Dudley. His missiology consisted of love, passion, peace and respect to engage in meaningful encounters with Muslims. His missiology was based on the professional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Islam. Dudley Woodberry's missiology for Islam consisted of four elements: the Muslim sources, the non-Muslim sources, the popular beliefs and practices of Islam, and the

mission. The Islamic studies of Dudley Woodberry has opened a new horizon of Christian missiology for Islam mission in the 21st century.

### 참고문헌

- 김아영. 『민속이슬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4.
- Engen, Charles Edward van. 임윤택 옮김.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4.
- Engen, Charles Van. 임윤택 옮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서울: 도서출판 두란노, 1994.
- MacCurry, Don M. *The Gospel and Islam; a 1978 Compendium*. Monrovia: MARC.
- Neill, Stephen. 홍치모, 오만규 옮김. 『기독교 선교사』. 서울: 성광문화사, 2001.
- Reisacher, Evelyne A. *Toward Respectful Understanding & Witness among Muslims : Essays in Honor of J. Dudley Woodberry*.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2.
- Woodberry, D. J. "School of World Mission Newsletter."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5, No. 2 (1993).
- Woodberry, D. J. "The View from a Refurbished Chair." *AMERICAN SOCIETY OF MISSIOLOGY SERIES* -, no. 23 (1996): 189-96. <http://www.riss.kr/link?id=08054572>.
- Woodberry, J. Dudley. *Muslims & Christians on the Emmaus Road*. Monrovia: MARC, 1990.
- Woodberry, John Dudley. *From Seed to Fruit : Global Trends, Fruitful Practices, and Emerging Issues among Muslims*. 2nd ed. Pasadena, CA: William Carey Library, 2010.